

조보

조정의 기별

59

webzine

담談

2019.01



담談

소리를 내어 읽으면 '담담'

뜻으로 보자면 '이야기와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이를 떠들썩하지 않고 단정하게 표현하고자 하며 여기에 옛 정신과 현대 정신의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하려는 의지를 담은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은 매달 선정된 주제에 따라 관련 이야기 소재를 스토리테마파크에서 선별하여 창작자들에게 소개하고, 창작자들은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모티프로 자유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웹진에 선보입니다.

'담談'은 2014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달 1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연결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공병훈

꿀이 많은 곳을 발견하거나 좋은 집터를 발견하면 꿀벌들은 엉덩이를 흔들면서 8자 모양으로 돌며 춤을 춥니다. 춤이 꿀벌의 언어인 셈입니다. 고릴라는 가슴이나 땅바닥 또는 물체를 두드려서 의사를 전달하고 30마리씩 떼를 지어 사냥하는 하이에나는 으르렁거리거나 코를 씨근덕대고 울부짖고 웃음소리를 내어 의사를 소통합니다.

소통을 뜻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단어는 공통되는common, 또는 공유한다share는 뜻의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했습니다. ‘communis’는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 ‘community’라는 단어를 파생시킵니다. 소통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며 소통은 개인들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 움직이게 하고 공동체는 소통을 통해 개인들을 연결하고 직조織造합니다. 소통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도구이자 공동체를 운영하는 수단입니다.

조보朝報를 아시나요? 승정원에서 매일 아침 발간되어 전국에 배포된 조선 시대의 신문을 가리킵니다. 조보에는 왕의 명령과 활동,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 왕에게 올라온 상소와 답변, 조정의 인사발령, 궁에서의 행사와 새로 시행하는 정책, 명나라와 청나라, 일본 같은 해외 소식과 외교적 사안까지 담았습니다. 이런 신문을 500년 내내 발행하며 언론 즉, 공론公論을 운영한 나라는 당시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병성 선생님은 『동패낙송』에 실린 소설 「조보」의 흥미로우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통해, 조선의 정치와 사회, 문화에서 공론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던 조보에 대한 내용을 펼쳐 내셨습니다. 어떻게 발행하고 누가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당한 수난의 사례와 조보에 대한 보도 지침, 배포 방식, 배포 금지, 구독료, 언론탄압 등 조보가 한 사회적 역할 등의 흥미진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유현 선생님은 병자호란의 시기였던 17세기에 안동에 거주했던 김령(金玲, 1577~1641)의 일기 자료를 통해 조보가 어떻게 조정 내부 소식 뿐만 아니라 외교적 사안이 전달되었는지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조선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했던 시대에 조보가 어떻게 조선의 눈과 귀가 되었는지, 전쟁 때 옥을 당한 부녀자들을 남편과 집안이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보의 내용에는 몇 백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정용연 작가님의 이달의 “일기”는 새해 첫 조보에서 파직 소식을 접하고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일기草澗日記 내용을 작품으로 그려 주셨습니다. 공무 수행에 완전하지 못하여 파직당한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 하면서도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독서와 교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에 빠진 권문해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홍윤정 작가님은 ‘감추려는 자와 알고자 하는 자’라는 글을 통해 내용을 드라마에 담겼던 조보와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이야기 중 기자가 쓰고 인쇄공들이 밤새 작업한 호외 기사로 실종된 검사를 구해낸 이야기, 50부작 드라마 <화정>속 정명공주에

게 씩워진 조작된 역모죄를 밝히게 된 조보의 발간 내용, 성균관 유생들이 조보를 읽고 호외처럼 뿌리는 장면이 담긴 <성균관 스캔들>, 나라의 명운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절, 화장품 파는 방물장수를 통해 은밀히 조보를 구해서 보던 <미스터 선샤인>의 애기씨 고애신의 이야기 등 홍윤정 작가님의 글은 언제나 다음 달의 글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2019년 편집위원들의 야심을 담은 새로운 기획은 ‘나무판에 새긴 이름, 편액’입니다. 우리 선현들은 건물의 공간에다 성현이 남긴 경전이나 유명한 학자들의 글에서 인용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당대 이름난 사람의 글씨를 받아 목판에 새겨 건물에 붙였습니다. 이를 ‘편액’이라고 합니다. 편액의 의미를 알면 건물의 기능과 용도, 그리고 건물 안에서 생활했던 선현들의 삶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에서는 이번 호부터 본원이 소장하고 있는 편액을 소개하고, 편액에 새겨진 글씨의 의미와 그 공간에서 생활했던 선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1월은 우리나라의 가장 추운 달입니다. 하지만 말일쯤이면 제주에서부터 봄이 시작됩니다. 1월을 뜻하는 January는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Janus를 뜻합니다. 야누스는 평화로울 때 닫는 문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남북한 분단 70년에 봄이 올 듯 싶다가도 소한, 대한과 같은 추위가 기세 등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단의 겨울을 넘은 평화의 봄 바람을 기다리며 독자 여러분들께 퇴계 이황의 14대손으로 안동 도산면에서 태어나신 이육사 시인의 시詩 <광야>를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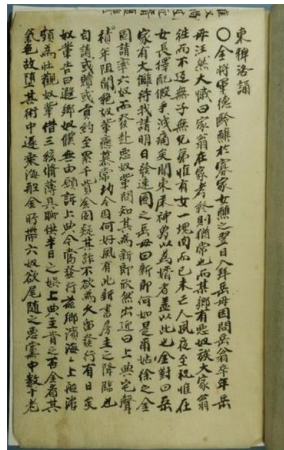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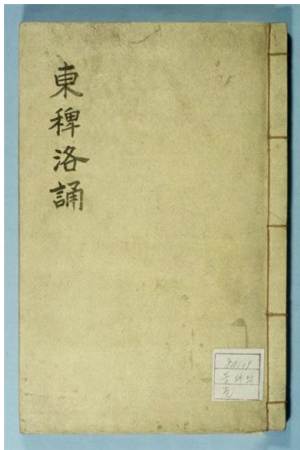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1945. 12. 17 『자유신문』

소설 「조보」 를 통해 본 조보

가난한 무관 우하형은 우연히 허드렛일을 하는 수급비(물 깎는 여중) 궐녀라는 여자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된다. 수급비는 우하형의 관상이 병마절도사가 될 상이라고 생각하고, 은전 6백 냥을 주어 서울로 가서 성공하라고 한다. 우하형을 서울로 보낸 수급비는 그 후 홀로지내는 장교의 후처가 되어 장교 집 재산 관리를 하며 지내게 된다. 그러면서 그녀는 ‘조보’를 통해 우하형의 소식을 찾는다. 7년 뒤 수급비는 우하형이 평안도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조보’를 통해 알게 되자, 장교에게 이별을 고하고, 남장을 한 채 우하형을 배달케 해 조정의 정세를 파악한다. 그녀는 조정에서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조보’를 통해 유심히 관찰하여, 다음 인사담당자가 될 사람에게 뇌물을 바친다. 뇌물을 받은 자가 인사담당자가 되니, 우하형은 승진하여 병마절도사에 이른다. 그런데 우하형이 죽자, 수급비도 식음을 전폐하고 죽고 만다. 우하형의 발인 날 상여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수급비의 상여를 함께 발인하니, 그 때 움직였다.



<동패낙송(東稗洛誦)>, 조선 후기 노명홍이 저술한 한문단편집.

저술 시기는 1770년대로 추정되는데, 조선 후기의 여러 한문단편집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작품이다. 총 56편이 수록되었는데, 각 편의 제목은 없으며 각 편이 시작될 때마다 항을 달리하여 첫머리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어 구별하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이 내용은 18세기 한문단편집인 『동패낙송』에 실린 소설 「조보」의 대체적인 줄거리이다. 여기서 보면, ‘조보’가 주된 소재이고, 기생출신인 수급비는 문자를 알아, 정보를 수집 하는데 ‘조보’를 심분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보’에 실린 기사를 분석하여, 당시 인사발령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인사 청탁에 활용하였다. 「조보」가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으나, 당시 조보가 어떻게 배포되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독자가 누구인지를 추정해 하는 정황을 그려 내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조보는 어디서 발행했을까?

조보는 어디서 발행 했나

조선 시대 조보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승정원에서 매일 매일 발행하였다. 전쟁기간 중에도 발행했으며, 국왕이 발행을 중지했을 때도 신하들이 그 발행을 주장하였다. 그러니 일간 신문과 같은 셈이다.



창덕궁 승정원 (출처:한국문화재단)

조보가 언제부터 있었는가에 관해서는 정확한 물증은 없다. 1931년 이종수는 동광 제28호에서 “조선신문의 기원은 신라 신무왕12년(692년)에 설총이 이두를 지어 관부문찰(官府文札)에 썼다는 「기벌(寄別)」에서 찾을 수 있으나, 참고할 만한 문헌이 없다.”라고 하여 그 기원을 신라에 두고 있다. 그 후 조보라는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 1508년 3월 14일 중종실록 5권에 처음 나타난다. 하지만 1515년 중종은 “조보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점을 고려해 보면, 조보는 그 이전부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보의 기사는 누가 작성 했나

조선시대에도 ‘기자’라는 명칭이 있었을까? 누가 조보의 기사를 작성했을까?

승정원에는 오늘날 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서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주서는 승정원의 우두머리인 도승지(오늘날 비서실장)의 감독 아래 그 날의 조정소식, 달리 말해 왕의 명령, 인사발령, 상소문 자체와 상소문에 대한 왕의 지시, 왕의 근황, 지방에서 올라온 소식, 날씨 등등을 취합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여 조보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조보는 조보소라는 곳에 매일 매일 게시하여야 했다. 주서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보고, 이를 취합해서 정리해야 하므로 그 일은 간단치 않았다. 글 쓰는 속도가 중요하고, 남이 잘 알아보게 쓰는 일은 기본이었다. 조보에 기사가 실리는 가 아닌 가 혹은 어떻게 실리는가는 조선 시대 정치세력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심지어는 왕조차 조보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조보기자인 주서와 승지는 대신관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다.

조보 작성자, 주서(注書)의 수난

선조 30년인 1597년 11월 2일에는 신하가 “조보(朝報)는 주서(注書)가 비밀히 등서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근래 태만함이 날로 심해져 비밀에 관계된 일을 거리낌 없이 탈락시키는가 하면, 더러는 날이 저물어서야 등서하여 보내니, 직무를 태만히 함이 너무 심합니다. 추고를 명하소서.” 라고 임금에게 말한 것을 보아, 당시 주서의 직무태만이 도를 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조 33년인 1600년 8월 19일에는 신하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주서(假注書) 이형원(李馨遠)은 비밀스런 조보(朝報)를 졸필로 어지럽게 글씨를 써서 사람들이 해독할 수가 없게 하니, 기사(記事)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체차하소서(바꾸소서).”

그런가 하면, 신하들이 승정원에서 국가 비밀을 조보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담당 주서의 죄를 따질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모든 공사(公事)로 인한 문자에 혹시라도 중국의 장수들과 관련되는 것이면 비밀히 하여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할 터인데 정원에서 조보(朝報)에 내보내어 외부에 전파시켰으니, 매우 부당한 짓입니다. 담당 승지를 추고하도록 하소서.”
(조선왕조실록, 1597년 선조 30년 5월 17일)

조선 시대 상소는 임금이 재가해야 그 내용이 조보에 실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선조실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잘 실려 있다.

“계하(啓下)하지 않은 상소는 본디 조보(朝報)에 나올 리가 없으니, 이는 필시 정원에서 지레 발표했거나 개인적으로 사전에 몰래 알려줘서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사체(事體)로 볼 때 매우 해괴하고 놀랍다. 엄중히 구명(究明)하고 싶으나 우선은 응서할 것이니 앞으로는 이와 같이 하여 스스로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 1599년 선조 32년 11월 16일)

조보에 대한 ‘보도지침’

승정원 주서들에게도 현대식 의미의 ‘오프더레코드’의 사상이 있었다. 조선 시대 왕은 군사기밀이나 비밀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보에 내지 말 것을 강제하였다. 광해군은 1609년 4월 5일에 중국에서 온 객사가 국경에 오래 머무를 모양이니 비밀스러운 일을 조보에 내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객사(客使)가 오랫동안 국경에 머무를 모양이니, 우리나라의 비밀스러운 일은 조보(朝報)에 내지 말고, 또 몰래 내통하는 자를 특별히 엄금하도록 은밀히 선위사(宣慰使) 등에게 지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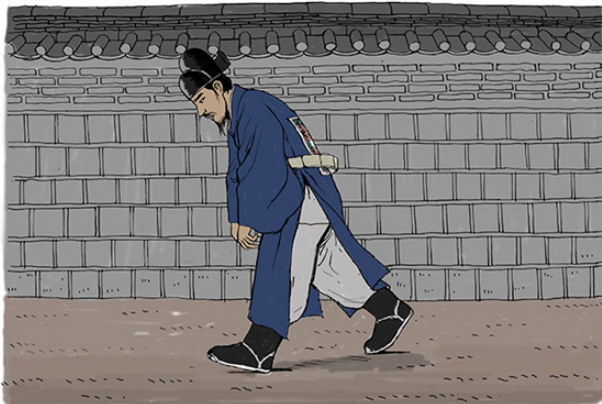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징병에 관한 일이 조보에 실린 것을 개탄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기사를 조보에 내지 말 것을 명하였다.

“전일 양사의 계사 가운데 징병에 관한 일을 조보(朝報)에 내면 안 되는데, 조보에 내어 중외에 전파시켰으니 정원이 너무도 잘못했다. 지금 이후로 이런 일은 조보에 내지 말라.”(조선왕조실록, 1618년 광해 10년 6월 7일)

광해 11년 1619년 8월 12일에는 비밀로 붙일 전교를 조보에 낸 일로 해당 주서를 추고하기도 하였다

“제반 비밀에 붙여야 할 일은 조보(朝報)에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두 번 하교한 것이 아닌데, 근자에 접대소에서 올린 계사와 차관과 관계되는 일에 대하여 내린 전교들을 모두 조보에 냈다고 한다. 이는 전교한 뜻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서 극히 놀랍다. 해당 주서를 추고하고 앞으로는 조보에 내지 말게 하는 일을 착실하게 거행하라.”

당시 승정원의 주서는 뛰어난 문장력과 속필능력이 기본 자질이이었으며, 아침과 저녁에 2교대를 하고, 때론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임기 후에는 지방 수령으로 승진될 자격이 주어지는 등 나름 안정된 직업이었기에 조선시대 젊은 엘리트들에게는 요직이기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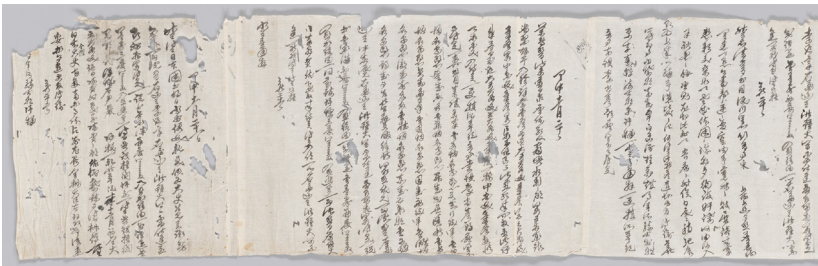
격무에 시달리는 승정원 주서(注書)의 모습

조보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나

조보 내용은 대체로 관리의 임면, 이동, 승진 등 인사동정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신하가 관직을 받고 부임지로 떠나기 전 임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숙배기사,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패초기사, 상소에 대해 국왕이 내린 답변인 비답기사, 사직, 휴가, 휴직 등을 청하는 정사기사 등이 많았다. 이외에도 왕의 대국민 담화문 격인 운문기사, 지방의 각종 보고서 기사, 제례에 관련된 기사, 국왕의 동정 기사, 날씨 기상 천문에 관계된 기사, 사망기사, 개명기사, 농사 기사, 범죄기사, 문안 기사, 과거 기사, 건강기사, 자연재해 및 역병기사, 외국동정기사 그리고 기타 기사 등이 실렸다. 이런 면에서 조보의 기사는 대체로 오늘날 정치면과 유사하며, 아울러 사회면과 거의 흡사한 측면이 있다.

이들 기사는 현재 신문처럼 헤드라인을 크게 해서 실린 것이 아니라, 기사제목이나 헤드라인이 없이 쪽 서술 되었다. 그 크기는 대체로 세로 35cm 내외이고 길이는 각각각색이다. 다만 각 부분의 첫머리에는 해당 날짜를 썼고, 사건처리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다. 문장은 웬만한 학식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흘림체인 난초체로 쓰였다. 이를 기벌체, 조보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렇다 보니, 부녀자나 평민 등은 조보를 보기 어려웠다. 한편 궁내에서는 조보의 내용이 한글로 번역되어 유통되기도 하였다. 순조가 즉위한 1800년 7월 20일자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를 “대왕대비가 <조보>나 소장 등을 언서로 등서해 들여오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다.

조보는 어떻게 배포 되었나



갑신년(1884) 10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갑신정변 기간(1884.10.17-19)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보(朝報)이다. 이 조보를 쓰는 사람을 기벌서리(奇別書吏)라 하고, 조보를 돌리는 사람을 기벌군사(奇別軍士)라 하였다. 지방에 보내는 조보는 대개 뒷새 분을 적어서 봉투에 넣어 보냈는데, 대개 초서체로 휘갈겨 써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각 관청에서 나온 ‘기벌서리’는 조보소에 게시된 조보를 필사해 자기 부서로 갔다. 거기서 기벌서리는 다시 필요한 만큼 필사해 신문배달부에 해당하는 ‘기벌군사’에게 주면, 기벌군사는 각 부서에 배달하였다. 조보의 배포 범위는 원칙적으로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판서·한성 부윤과 기타 중앙관의 서장, 지방 절도사·병마절도사, 수령 등 현직 및 전직 고급관리들이었다. 아울러 지역 유지나 양반집 등에도 배달되었다. 지방은 지방주재원 격인 ‘경주인’이 이를 취합하여 5일 혹은 10일 치 기사를 봉투에 넣어 인편으로 전달하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연락원이었던 ‘경방자’를 통해 지역에 전달되기도 하였으며, 각부서의 관원이 지방에 내려 갈 때, 조보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조보는 역로를 통해 관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인조 대에 이르러서는 서간을 왕래하는 편에 조보를 몇 장씩 동봉하여 부치는

등 각종 사적 경로를 통해 민간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지방 수령들은 전달 받은 조보를 다시 등사시켜 지역 유지들에게 배달해 주었다. 1633년 1월 8일 작성된 김령의 <계암일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조보가 어떻게 배달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김령은 아침에 예안(안동) 현감이 보내준 조보를 읽었다. 회답사로 파견된 신득연이 압록강 근처에서 입국을 거절당해 발이 묶여 있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다. 예안에 사는 김령이 조보로 오늘 알게 되었으니, 아마 도성에서는 이 때문에 이미 여러 소문이 무성할 것이었다.”

조보의 배포금지

조선 시대 관리는 물론 퇴역 양반 등 민간인들도 조보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반역자나 역모를 꾀한 자 혹은 죄를 지은 자에게 조보를 보여주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다. 1561년 5월 28일자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벌 받은 자가 조보를 빌려 보자 이를 경계하여 더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상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전 사간(司諫) 최우(崔瑀)는 무오년의 괴수(魁首)인데도 특별히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서울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전교하였으니 당연히 감격하여 스스로 징계하고 반성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받은 뒤에도 서울을 출입하며 편안히 집에 있으면서 빈객을 접대하기도 하고 조보(朝報)를 빌려보기도 하였으니, 그의 소위를 살펴보면 조정의 사정을 탐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업신여긴 정상이 매우 경악스러우니 외방으로 귀양 보내어 뒤에 이를 본받는 자를 경계시키소서.”

광해군 때(1618년 10월 9일)에는 감옥 죄인들에게 조보가 전달되는 것을 고발하는 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양옥(王獄)은 지극히 엄한 곳입니다.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방비와 출입 등의 일을 오히려 엄하게 단속해야 하거늘, 하물며 이렇게 역적의 도망들이 옥에 가득한 날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근래 금부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태만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죄인을 가두어 놓은 곳에 사사로운 편지가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보(朝報)와 분발(分撥)을 공공연하게 전해 보여주고, 심지어는 술을 먹여 떠들게 해서 그 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전에 없던 변고로 소문이 전파됨에 놀랍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해당 도사 및 수직 하리 등은 나국하고, 파수 별장과 선전관, 포도군관 등은 파직하소서.”

하니, 아린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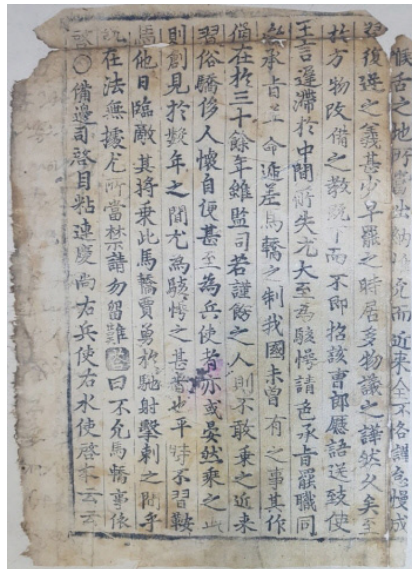
조보를 적군인 왜군들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금지되었다. “듣자니 간사한 모리배들이 조보(朝報)와 정목(政目)을 백금 50, 60량을 받고 왜인에게 팔아넘긴다고 한다. 잠상인(潛商人) 가운데 이러한 무리들을 심분 엄하게 금지하여 번거롭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상 감사에게 하유하라.>” 라는 광해군 일기(1621년 3월 11일)를 보면, 잠상인들이 조보를 왜인들에게 팔아넘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광해군은 이러한 행위를 엄금하도록 명령하였다.

조보의 구독료는 얼마?

『목민심서』에는 “각 고을에서 임사로 쓰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돈인 민고(民庫)에는 쌀감을 위한 돈, 어름을 나르기 위한 돈, 과실을 사기 위한 돈, 옷감을 사기 위한 돈, 조보를 사보기 위한 돈(朝報價).... 등 이 있으며, 이외에도 자질구레한 명목들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하여, 조보의 구독료가 백성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옴을 알 수 있다. 조보는 각 관청의 기별서리가 등사해 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모든 관청에 기별서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인조 대 홍문관에는 기별서리가 없어서, 조보채를 주고 사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 구독료를 지불해야 했다. 정조 때 박일원이 형조의 사례를 모아 편집한 책인 『추관지(秋官志)』에 의하면, 조선 정조 시대 형조의 당상관 1인의 <조보> 구독료는 4냥이었고, 그 아래 낭관의 구독료는 6명이 4냥이었다. 구독료를 지불하면, 서울의 외국공사관이나 영사관도 조보를 볼 수 있었다.

조선 최초 최악의 언론탄압

2017년 7월 17일 SBS의 8시 뉴스에서는 인쇄된 조보의 실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사학자 김영주 교수는, 영천의 용화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인쇄조보에 대해, 1577년 인쇄된 것으로 정확한 검증만 거친다면, 세계 최초 ‘활판인쇄 상업 일간신문’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경북 영천 아사동 용화사가 공개한 1577년 음력 11월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보(朝報)’
(출처: 경향신문)

인쇄 조보에 대해 옛 기록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선조 재임 시절인 1577년 8월부터 11월까지 조선에서는 민간인에 의해 조보가 인쇄되어 판매 된 적이 있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과 울곡 이이의 <석담일기>에 나타나 있다. 1578년 2월에 쓴 <석담일기> 하권에 보면, 서울에 놀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관보를 인쇄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본받아 생활 밀착이라도 벌어들일 양으로 의정부에 “조정의 관보를 인행하여 각 관청에 내고, 그 값을 받아 생활의 밀착으로 하겠습시다.”라는 건의를 했고, 그 허락을 받았다. 그 후 이들은 사헌부에서도 허락을 얻은 후 활자를 만들어 <조보>를 인쇄하여 각 관청과 외방 관청의 서울 주재 사무소와 사대부들에게 판매를 하였다. 정자체로 인쇄된 조보를 보자, 사람들은 그 가독성에 쌍수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두어 달 뒤에 선조가 이를 우연히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관보를 간행하는 것은 사적으로 사국(史局)을 설치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만일 다른 나라에 유전되어 알려 진다면, 나라의 악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자 신문을 인쇄한 이들 30여명은 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고, 주모자를 추궁 당했다. 그러나 특별히 주모한자가 없자, 대간이 형을 정지하자고 왕에게 청하였으나, 왕은 이를 거절하고, 이들을 귀양 보냈다. 그 후 민간인쇄 조보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시대 최초의 언론탄압은 막을 내리게 된다. 200년 뒤 정조는 즉위 하자(1776년) <조보>를 인쇄할 것을 신하들과 토론하였으나, 신하들이 선조의 예를 들며,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다.

조보는 어떤 기능을 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시대, 체제 불문하고, 사회 통합 및 사회통제의 기능을 한다. 미디어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회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일탈자들의 처벌을 보도함으로써 사회통제의 기능을 한다. 조선 시대 조보는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하였다고 보여진다. 사회구성원들이 체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 기능을 하였고, 조보를 통한 각종 탄핵 결과와 반역자에 대한 처벌 보도는 사회일탈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 가를 보여 줌으로써 사회통제를 하였다.

조선 시대 조보는 현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인 정보 전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인사발령 등의 정보는 조선이라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생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상소문에 대한 정보, 왕실정보 등은 왕조에 대한 체제 유지 기능을 하였다.

조보는 천재지변, 날씨, 역병 소식 등을 보도함으로써 당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을 감시하게 하는 환경감시 기능을 하였다. 또한 조보는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담화문 격인 운문 등을 보도함으로써 지도기능을 수행하였다.

승정원에서는 날마다 왕의 명령, 인사발령, 상소문의 재가, 신하들의 건의문, 지방 보고서 등을 기록하고 이를 기사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보가 역사기록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작성하는데 임진년 병란으로 당대 20여년의 사초가 없어져서 작성하기 힘들게 되자, 왕은 서울과 지방의 각 가정에 모아둔 조보를 수집하여 실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조보는 사건이나 인사발령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여론형성 기능을 하였다. 석담일기에서는 오늘날 행자부 장관격인 이조판서에 박충원이 임명되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이 사실을 조보에서 보고, 자질 없음을 공론화하자, 이에 박충원이 사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조보가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신문이라 함은 종이에 인쇄된 것이거나 스크린에 인쇄된 것으로 전국과 전세계에 배포되어 불특정 다수의 이질적인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신문 비용의 일부를 광고를 통해 충당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정부의 비판으로부터 사건사고, 정치·경제·문화, 날씨, 외신, 연예, 오락 등등을 모두 포괄한다. 비록 조보는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만 인쇄 되었고, 나머지 기간은 필사되어 1894년 관보가 인쇄되기 전까지 쪽이어져 내려온 신문이다. 서구적 신문 개념에서는 조보가 계속 인쇄되지 않았고, 광고와 오락이 없어 ‘유사 신문 현상’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선 시대 조보는 딱딱따끈한 조정의 소식과 인사 소식, 사회 돌아가는 소식을 전해주는 당당한 신문 매체로서 관과 사대부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다했다.

작가 소개

노병성



Keep smiling

현재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3년 「1980년대 한국 출판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삼강행실도』에 관한 커뮤니케이션학적 접근」, 「조선시대 왕조 PR에 관한 고찰: 정치이념 홍보를 중심으로」,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독서방법에 관한 고찰」 등의 논문을 썼다.

참고자료

『조선왕조실록』

국역 『대동야승』

《동광》 제28호, 1931.12월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

SBS 8시 뉴스, 2017.4.17. 유튜브

김경래(2007). 「인조대 조보와 공론정치」, 『한국사론』 53권

김경수(2000).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서울:도서출판 가람기획

김영주(2017). 「조선시대 민간인쇄 조보의 언론사적 의미」, 『한국언론정보학보』 85호

권기성(2018). 「18세기 야담의 현실인식과 새로운 현저담의 등장」, 『민족문화사연구』 67권

박정규(1982).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 신문에 관한 연구: 조보와 그 유사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선별된 진실, 조보

조보에는 조정 내부의 소식 뿐 아니라 외교적 사안에 관한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다. 원칙상 전·현직 고위관리만 조보를 볼 수 있었는데, 실상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대부들에게도 현감 등의 지방관들이 조보를 전달해 주기도 했던 것 같다. 일례로 17세기에 안동에 거주했던 김령(金鈴, 1577~1641)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김령은 종3품 사간, 보덕 등의 관직을 받았으나 조정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비록 그가 실질적으로 재직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동에 부임해 오는 지방관들은 그를 예우하여 조보가 올 때마다 1년에 3~4차례씩 보내 주었다.

김령은 조보를 읽고 일기 속에서 시국에 대해 논평하였다. 비록 그는 지방에서만 거주하였지만 조보를 통해 정세를 읽을 수 있었고, 혹 자신이 속한 정파나 학파에 불리한 상황이 생겼음을 알게 되면 통문을 돌리는 등 여론을 모으고 상소를 올려 정국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김령의 일기 계암일록 에는 조보의 내용과, 그에 관한 김령의 논평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17세기의 중요한 사안들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 조정에서 조보를 발행할 여력이 없었을 때는 김령도 눈이 멀고 귀가 막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을 가진 전직 관료에서 소문에 의존해야 하는 일개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

조보는 전쟁의 조짐을 알리지만

17세기에 조선에서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인 인조 10년(1632) 3월, 봉화 현감이 조보를 보내왔다. 김령은 가도(槲島)의 정세가 걱정스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가도는 현 평안북도 서해에 있는 섬인데, 중국과 조선의 국경지대로서 중요한 곳이었다. 섬 안에는 명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뒤 후금(청) 군대에 의해 고립되어 섬 안에 보급이 끊어졌다고 전해졌다. 보급 뿐 아니라 소식도 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소문만 무성하였다. 평안군이 병선을 수리하여 다시금 전투에 임한다고도, 후금과 내통하고 있다고도, 더 나아가 조선을 침범하거나 중원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등 모든 가능성이 소문으로 떠돌고 있었다.

……이달 초하루와 초이튿날 연달아 햇우리가 지고, 흰 무지개가 그 가운데를 꿰뚫었다. 세 정승이 사직을 청하고, 승정원에서 시사에 대하여 말하였다. 가도槲島의 형세는 심히 의심스럽다. 섬 안에 양식이 끊어져서 병선을 수리하여 장차 움직일 기세가 있다. 혹은 오랑캐와 통하였다 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한다고도 하며, 혹은 중원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도 하니, 알 수가 없다. 또한 등주登州와 내주萊州에서 반란을 일으킨 적당이 있어서 바닷길이 막혔다고도 한다. (계암일록 인조 10년(1632) 3월 14일)

조보에 여러 가지 소문이 실리는 것도 이해롭지만, 조정이 가도의 정세를 그저 관망하기만 할 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소문을 조보에 한가롭게 실고 있는 것도 다소 우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 이후 한동안 변방과 관련한 소식은 조보에 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인조 11년(1633) 새해가 되자, 비로소 다시금 압록강 건너편에서 후금(청)군이 사신의 길을 막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하지만 조보는 이에 대해 대강의 사실만 적을 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김령은 더욱 시세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김령의 불안감 이상으로 서울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불길한 소문이 돌았다. 후금군이 ‘사신이 오갈 필요 없이 전투를 치러 판가름을 내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을 듣고 피난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와 김령에게 소식을 전한 이들도 역시 시세가 매우 흉흉하다고 하며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24일에는 서쪽 변방의 보고가 연달아 이어졌는데, 회답사回答使 신덕연申得淵이 압록강에 이르러 길이 막혔다. 대개 오랑캐가 통사通使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랑캐 차사가 왕래함에 서계書契(문서)가 도리에서 벗어나고 거만하였다. 압록강 건너편에는 군대의 깃발이 치달렸다는데, 이러한 것 등의 조목은 모두 숨기고, 조금이라도 근심스럽고 의심스러운 것은 조보에 실지 않았다.

봉화 현감 이구李球의 아들 이척연李惕然과 아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급히 그의 장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애타게 사람과 말을 기다렸는데,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 난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김우익金友益 군도 설에 서울에서 돌아와 도성이 흉흉하고 사세가 몹시 다급하다는 것을 전해주었다. 혹자는 이르기를, “오랑캐의 글에 ‘통신사도 보낼 필요 없고, 물품도 보낼 필요 없다. 마땅히 한 번 싸워 결판을 내겠다.’라고 하였다.”고 하며, 혹자는 이르기를, “당초 맹약할 때에 명나라를 섬기는 예로 우리를 섬기도록 하였는데, 점차 약속과 같지 않으니, 우리가 마땅히 결전을 치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계암일록 인조 11년(1633) 1월 8일)

다음 달인 2월 25일, 예안 현감이 다시금 김령에게 조보를 보내 주었다. 이번의 조보는 1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의 소식을 실고 있었다. 국경의 상황은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였다. 전적(典籍) 나무송(羅茂松)은 방비를 논하는 상소를 올렸다. 또 국가 재정은 이미 강화도로 수송하였고, 종묘와 사직 역시 모두 강화로 옮길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들렸다. 후금 측에서 3월 1일에 의주에 시장을 열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를 빌미로 군사가 들어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보에서 다른 변방의 상황들과 이에 혼란스러워 하는 조정 및 민간의 태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병자호란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해 준다. 병자호란 4년 전부터 이미 명과 후금 사이의 전쟁이 조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조는 후금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랑캐’와의 전쟁을 결코 피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선봉에 나아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비망기를 통해 피력하였다.

……전적典籍 나무송羅茂松이 보장保障·방비防備 등에 관한 일로 상소하였으니, 가소롭다. 도성은 반 이상이 피하여 나갔고, 국가의 재정도 강화江華로 다 수송하였으며, 종묘와 사직도 옮겨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대개 오랑캐 병사가 3월 초1일에 의주에 와서 시장을 열 것이라고 기억하였기 때문이다.……(종략)……13일의 비망기에 말하기를, “승패는 병가兵家에 늘 있는 일이다. 금군의 군대가 비록 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매번 싸울 때마다 틀림없이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군대가 비록 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매번 싸울 때마다 번번이 패하는 것은 아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용사는 제 머리가 잘려 잃어 될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군사가 교만한 경우는 패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만약 장수와 사졸이 죽음을 다한다면 저 교만한 군사를 패퇴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랑캐 군대가 만약 쳐들어온다면 과인이 선봉에 나아가 주둔하면서 충의忠義를 격려하고, 아울러 서토西土의 군민軍民들을 위무할 것이다. 이러한 뜻을 비국備局에 말하라.”고 하였다.(계암일록 인조 11년(1633) 2월 25일)

인조의 위무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상황들을 반영하듯 5월 11일에는 한성부 관내에 있는 못의 물이 붉게 끓어올라 홍색이 되고 물고기가 죽어 떠올랐다고 하며, 강원도에서는 사람 얼굴처럼 생긴 우박이 내렸다. 흉조는 비단 외부의 침략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다. 요역과 세금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원성과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창경궁을 수리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창덕궁은 계해년(1623) 반정 때 불탔고, 창경궁은 이괄의 난(1624) 때 불탔기 때문에 왕이 거처하기에 불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국고가 궁 재건에 소비되는 가운데 사헌부는 국경지대에 군사와 군량이 더 필요함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이미 군역과 요역에 고통 받고 있는 백성들을 더 보낼 수는 없으니 국경에 내수사의 노비를 보내고, 내수사의 노비가 바치는 베를 군량을 대는 데 사용하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이를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이날 예안 헌감이 보내주어 조보朝報를 보았는데, 4월 초1일부터 16·17일까지의 것이었다. 헌납獻納 이상질李尙質이 “현재 요역과 부세가 너무 많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궁궐을 짓는 것은 적당한 때가 아니다.”라고 극언하였는데, 곧은 간관이 다. …(중략)…사헌부가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백성인데, 유독 군인이 되어 서쪽으로 가는 것을 면하고 있으며, 군량이 부족하여 백성들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나 내수사의 노비들이 바친 베는 한 필도 군량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폐단을 고칠 것을 청하였다. 이에 비답批答하기를, “내수사의 노비를 군인으로 삼는다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원망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수사의 노비가 바친 베를 군량으로 쓰는 일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윤허하지 않았다. (계암일록 인조 11년(1633) 5월 2일)

병자호란 전 해인 1635년에는 한동안 왕실의 능소에 벼락이 떨어진 일로 누구를 처벌할지에 대한 내용만 조보에 가득했다. 또한 이황의 명예와 관련한 이슈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조보에 실린 그 어느 내용보다도 이황에 관한 이야기에 김령의 이목이 쏠렸다. 인조가 이이에게 상중에 넣은 아기가 있다는 소문의 진위를 영의정 윤방에게 묻자, 이이가 아닌 이황의 일일 것이라 고 인조에게 답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이황의 불명예에 분노한 영남 유생들이 통문을 돌려 상소를 올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어떤 내용이든 일촉즉발인 변방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뿐이었다.

조보 발행 중지로 소식이 끊긴 지방

1636년에는 가을이 될 때까지 변경이나 청(후금)과 관련한 이슈가 조보에 실리지 않았거나, 혹은 안동까지 전달된 바가 없었던 것 같다. 8월에 이르러서야 한창 청과 전쟁 중인 명이 감군어사(監軍御史) 황손무(黃孫茂)를 보내와 조선이 청과 화의를 맺지 않은 것을 치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김령은 명·청의 상황이 어떠한지, 칙사를 접대하기 위한 요역과 부세의 수취가 우선 걱정되었던 것 같다. 김령이 알 수 있었던 외교·국방과 관련한 상황은 딱 여기까지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13일,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으로부터 청나라 병사가 안주에 이르렀다는 장계가 올라왔다. 이제는 한가하게 칙사를 걱정할 때가 아니게 되었다. 전쟁이 일어났으나 김령을 비롯한 남쪽의 여러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름 가까이 지나서야 피난민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미 조보는 발행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간간 조보를 통해 조정의 상황을 전해 들던 사람들 입장에서 눈과 귀가 막힌 것과 같았다.

청군은 지체하지 않고 진격하여 다음날에는 개성 송도를 지났다. 인조는 부랴부랴 종묘 사직의 신주와 빈궁을 챙겨 강화도로 향하였으나, 그 와중에 청군에게 따라잡히고 말았다. 최명길 이 승례문에서 강화를 청하는 와중에 인조와 여러 신료들은 수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하

였다. 왕이 도성을 버리자 도성 안은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로 가득했고, 인조를 따르는 신하들 중에서는 미처 말을 준비하지 못하여 도보로 호종하는 자들도 있었다. 남한산성에서 하룻밤을 지낸 인조는 강화도로 가고자 길을 나섰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 산길은 얼어붙어 있었다. 인조가 말에서 내려 걸어가려 하였으나,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남한산성행궁의 옛 모습.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임시로 사용한 궁궐. (출처:문화재청)

이 와중에 변방을 지키지 못한 장수들을 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1633년의 조보에서 살펴보았듯 군사와 군량의 총원이 필요했던 변방에 내수사의 노비조차 보내지 않았던 인조가 장수들을 벌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었다. 이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인조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 얼마 뒤 적진에 갇던 최명길이가 돌아와 강화조건으로 청에서 왕제와 대신을 인질로 잡기를 원한다는 것을 고하였다. 이에 신하들끼리 논의가 분분한 중 청군이 남한산성 아래에 도달하였다.

12월 16일에도 최명길은 적진을 오가며 강화를 의논하였고, 인조는 밀서를 성 밖으로 내보내 여러 도에서 군사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일원화되지 않은 지휘체계 속에 청군과 전투를 치른 거의 모든 군대는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또 조정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자들은 자신의 군공을 부풀려 보고하기도 하였다. 총체적 난국 속에 새해가 밝았다. 1637년 1월 1일, 인조가 백관을 거느리고 망궐례를 행하는 중에 청의 칸은 30만 명의 군사를 모아 탄천에 진을 쳤다. 최명길은 인조에게 강화를 다시금 권하였고, 칸 역시 귀순을 권하였다.

구원병이 온다는 소문만 믿고 버티던 인조의 귀에 1월 14일에는 병사가 얼어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15일에는 대부분의 구원병이 청군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22일에는 결국 비빈들과 종묘·사직의 신주가 있던 강화도마저 함락되었다. 연이은 비보에 침통해진 남한산성 안에서는 마침내 항복의 예를 표하는 의식이 논해졌다. 그리고 1월 30일, 마침내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출성하여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례를 행하였다.

이 모든 상황 하에서 김령을 비롯한 안동의 여러 사람들은 서울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통해 전쟁 소식을 듣거나, 지방관들로부터 전투 소식과 군대의 이동 상황들을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다. 각지에서 의병이 소집되었으나, 의병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대신 노비를 채워 넣은 뒤 도망가는 양반들도 있었다. 또 막상 의병을 모아 진군하다가도 전투 한번 안 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의병대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소문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김령이 전쟁 후 처음으로 조보를 받은 것은 항복 후 반 년쯤 지난 뒤인 1637년 7월 22일이었다. 7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내용이었는데, 강화도가 함락되던 날 윤방이 적진에 머리를 조아렸다는니, 머리를 땅에 두드렸다는니 하는 말로 서로를 헐뜯는 내용이었다. 또 용골대와 마골대가 사신으로 왔는데, 조보에서 그들을 황제의 사신인 ‘척사’라고 칭했다는 부분에 대해 김령은 불편함을 표하였다. 그러나 항복 이후인 이 시점에서는 무의미한 불만일 뿐이었다.

이미 시세는 명나라의 연호인 ‘숭정(崇禎)’을 쓰지 않고 청나라의 연호인 ‘숭덕(崇德)’을 사용하는 데 이르렀다. 인조가 사신이 가져온 칙서를 마치 흠을 보듯 했다고 조보에 실렸으나, 칙서를 천대해봤자 실질적으로 청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청 황제가 보낸 칙서에는 조선국이 청을 도와 가도에 남아 있던 명군의 잔당을 토벌한 것을 치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령은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가 금수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며 통탄하였다.

이른바 영칙迎勅이라는 것이 이달 3일에 있었다.…(중략)… “황제는 조선국왕 성휘姓諱에게 칙유하노라. 가도靛島의 도적들이 싹 제거되니 짐은 문호門戶의 도적이 없어졌고, 바다 기운이 말끔히 씻기어 너는 마음속의 근심이 없어졌다. 비록 여러 신하들의 노력을 빌리기는 했지만, 모두가 번국藩國(제후의 나라)의 지극한 정성에 힘입은 것이다.…”…(중략)…이것은 가도靛島를 치는 데에 협조했기 때문에 상을 논한 것이다. 차마 보지 못하겠다. 아! 어찌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이처럼 금수가 될 줄을 알았겠는가? 통탄스러우나 어찌 하겠는가? 하늘은 반드시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계암일록 인조 15년(1637) 7월 27일)

굴욕을 숨기고 분란을 드러내다

9월에는 다시금 청에서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조보에 실렸다. 김령은 ‘소위 칙사’라고 하며 비아냥거렸다. 김령의 관심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청에 대한 것보다, 이 시점에 권력을 쥐고 있는 좌의정 최명길의 동향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전시에 화친을 청했던 윤방 등의 사람들이 중용되지 못하거나 귀향하여 은거하게 된 것에 대해 은근히 고소해 하기도 하였다. 김령의 정견이 이들과 다르기도 했거니와, 특히 윤방은 이황에 대한 망언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령은 윤방에 대해 꾸준히 이를 갈아왔다. 그렇기에 윤방의 실각이 더욱 반갑게 여겨졌을 것이다.

또 김령은 남한산성이 포위되었을 때 ‘산성정시(山城庭試)’라고 불리는 과거가 시행되었다는 점, 전후 복구가 안 된 이 시점에 다시금 과거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아 이러니하게도 1639년 2월에 치러진 소과에서 김령의 아들 김요형이 합격하였다. 김요형이 과

거시험장으로 갈 때 김령은 이런 시기에 과거급제를 누가 바랄 것이냐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터였다. 그러나 똑똑한 김령의 아들은 합격을 해 버렸고, 김령은 쓴 입맛을 다실 뿐이었다.

한편, 청 사신을 접대하는 일로 조정은 매우 바쁘게 돌아갔다. 장막과 자리 등의 물건은 문무백관의 집안에서 계집종들을 시켜 바느질을 하게 하였다. 나라에서 하는 일 치고 모양이 빠지는 노릇이었으나 전후 나라의 피폐함 속에서 사신을 맞아야 하는 곤혹스러움 역시 짐작할 만하다. 인조는 사신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성대하게 보여야 한다고 하며, 백관은 관대(冠帶)·공복(公服) 차림을 하게하고, 10월에 있을 청 간의 생일 행사를 위해 예행연습까지 거행했다. 그러나 여진과의 분쟁 때문에 실제로 청 사신이 도달한 것은 11월이었다.

청 사신이 11월 20일에 돌아가자, 조보에는 다시금 전시에 있었던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로 분주한 조정의 모습이 묘사되었다. 김령이 좋아할 만한 소식도 전해졌다. 이 시기 주된 탄핵의 대상은 윤방이었다. 윤방이 강화도에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들고 들어가던 중에 신주를 흩어지게 하였으며, 항복 후 다시 신주를 가지고 나올 때 신주를 한 필의 말에 싣고, 그 위에 종을 태웠다는 것이었다.

……대사헌 유백증이 극언하여 말하였다. “김류와 윤방은 모두 나라를 망친 대신입니다. (종략) 윤방은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강화도에 들어갔었습니다. 사태가 매우 급하던 날, 배에 실어서 보호하여 피난시킬 수 없자, 먼저 스스로 적에게 나가서 항복하여, 차마 신주를 더럽히고 흩어져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던 날에는 신주를 모두 한 필의 말에 싣고 종에게 그 위에 걸터앉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죄악이 극심합니다.”……(계암일록 인조 15년(1637) 12월 21일)

1638년 7월의 조보에서는 전쟁 때 욕을 당한 부녀자들을 남편과 집안이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가족마저 버린다는 사실은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천인공노할 일이건만, 김령은 전쟁 중 강간을 당한(당했다고 여겨지는)여성들을 가족과 남편이 받아들이게 강요하는 것은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하며 예를 잃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명길이가 부녀자들을 버리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김령은 최명길이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옹호한 정책에 대해서도 더욱 비판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삼사三司에서 욕을 당한 부녀자에 대해 가장家長을 다시 합쳐 살게 하는 일 때문에 논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주상이 또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령했다. 삼사의 논계는 곧 바꿀 수 없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큰 간신에게 흔들렸다. 좌의정 최명길이가 거듭 다시 합쳐 살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선종조(선조)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증명하기에 이르렀다.……(계암일록 인조 16년(1638) 7월 21일)

윤방에 대한 탄핵은 해가 거듭 바뀐 1639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작 변방이나 청과 관련된 현 소식은 조보에 실리지 않고 있었다. 김령은 조금이라도 변방에 관련한 내용은 조보에 실리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하며, 청에 굽히는 의식이 있을 경우 숨기기 위해서라고 추측하였다. 오직 일상적인 내용만 실게 하는 조보에 대해 김령은 불만을 것이 없다고 하며 답답해하였다. 김령이 마지막으로 받아 본 조보는 9월 26일에 예안 현감이 거의 다섯 달 만에 보내 준 것이었다. 임경업이 몰고 간 병선이 많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김령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을 적지 않았다. 이로부터 김령이 사망하는 1641년까지 더 이상 예안 현감이 조보를 보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령은 조보를 통해 전쟁의 조짐과 변방의 동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전쟁의 기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었기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미리 피난을 준비하기도 했을 것이다. 막상 조보는 전쟁이 일어나자 더 이상 발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정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축소되었다. 지방 사람들은 조정의 동향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 했다. 타지로부터 온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거나, 소문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청에 항복을 한 뒤, 조정은 일부러 변방과 청에 관련한 소식을 조보에 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을 채 놓지 못한 사람들은 조정이 숨기는 소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조보는 주로 왕의 의지에 의해 공개할 정보가 선별되었고, 그 내용이나 어조 역시도 마냥 진실에 가깝지만은 않았다. 그렇기에 조보를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공정성과 투명함을 갖춘 매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조보를 받아보는 서울·지방의 전·현직 관료들은 이러한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김령처럼 노회한 관료들은 당연히 조보에 실린 내용만이 진실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조보를 받아 본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과 모여 시국을 논하거나, 개인 기록물을 통해 조보 자체나 시세에 대한 평을 남겨 놓았는데, 이러한 여론 형성의 계기는 조보가 목적하지 않았던 하나의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소개

강유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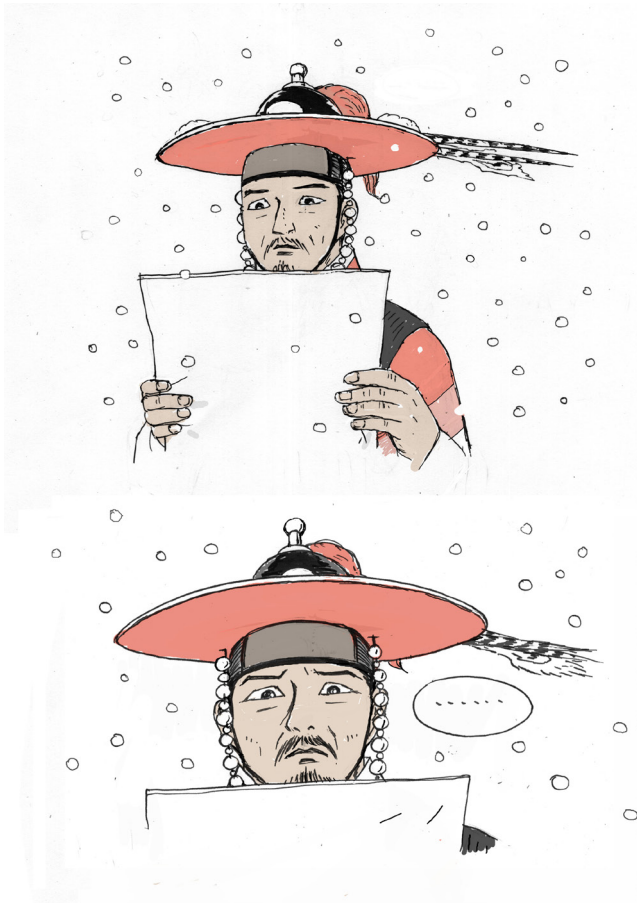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연세대에서 조선후기 중인층의 서화완상문화에 관해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인간의 욕망이 문화 저변에 드러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지금은 19세기 이래 근대기의 미술과 권력의 유착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새해 첫 조보에서 파직 사실을 알게 되다

삽화 정용연





1582년 1월 3일, 맑음

조보(朝報)를 보았다. 지난달 26일 죄인(罪人)이 탈옥한 일로 파직되었다. 신임(공주) 목사는 류영립(柳永立)이 되었다. 감사(監司)가 파출(罷出, 파면)하라는 장계(狀啓)를 봉송(封送)한 후에 민정(民情)으로 인하여 또 잉임(仍任, 인임)을 청하는 장계(狀啓)를 올려 “(권문해는) 정사를 돌봄에 있어 자상하면서도 강단이 있고[慈祥剛明], 몸가짐이 검소하다[自奉儉素]”는 것으로써 말을 하였다. 이것을 (전하께서) 이조(吏曹)에 계하(啓下)하였다. 이에 이조(吏曹)에서 회계(回啓)하기를, “권모(權某)가 다스림에 뛰어나고, 감사가 그를 파직시키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데다 백성들의 바람으로 인하여 장계를 올리게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일상적인 일은 아닌지라 아래에서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운 바, ‘앞드려 전하의 재가(裁可)를 바라옵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전하께서 비답(批答)을 내리셔서 “죄가 이미 파직이 될 만하다. 잉임(仍任)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법에 의해 시행하라[施行]”라고 하였다고 한다.

새해 첫 조보에서 파직 소식에,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다



새해 첫 조보를 받아보았는데, 거기에는 권문해 자신과 관련된 소식도 들어 있었다. 지난번 공주목의 감옥에서 죄수가 탈옥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 일이 문제가 되어 파직되었다고 한다. 신임 목사로 부임하는 이는 류영립이었다.

그런데 충청도 감사가 백성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권문해를 그대로 유임시켜 달라는 장계를 올렸다고 한다. “권문해는 정사를 돌봄에 있어 자상하면서도 강단이 있고 몸가짐이 검소하다.”라고 썼다고 한다. 이것을 주상전하가 직접 읽어보고는 이조에 내렸다고 한다. 그러자 이조에서 다시 보고하기를 “권문해가 다스림에 뛰어나고, 또 감사가 그를 파직시키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데다가 백성들의 바람으로 인하여 장계를 올리게 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것은 참으로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운바 옆드려 전하의 결단을 바라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상께서 비답을 내리셔서 “죄가 파직될 만하다. 자리에 계속 둘 수 없는 사람이라면 법에 의해 시행하라.”고 하였다 한다. 이리하여 공주목에 도착한 지 1년 남짓한 기간 만에 권문해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공무 수행에 완전하지 못하여 파직당한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바가 있었지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독서와 교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었다.

공주목사에서 파직을 당하다

* 출전 : 초간일기(草澗日記)

『초간일기(草澗日記)』는 권문해(權文海)가 47세이던 1580년 11월 20일부터 1591년 10월 6일까지 약 12년간 쓴 일기로, 임진왜란 이전에 쓰인 관료의 일기로 1500년대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당대 고위 관리의 눈을 통해 세밀히 기록되어 있다.

* 저자 : 권문해(權文海, 1534 1591)

본관은 예천(醴泉). 자는 호원(灑元), 호는 초간(草澗). 아버지는 지(祉)이다. 1560년(명종 1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좌부승지·관찰사를 지내고 1591년에 사간이 되었다.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 등과 친교가 있었다. 저서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받는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과 문집으로 『초간집』이 있다.

작가 소개

정용연



작가 자신과 가족 이야기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그린 "정가네소사" 1,2,3 권이 있고 현재는 고려말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다룬 "목호"출간 준비중이다.

감추려는 자와 알고자 하는 자

십 몇 년 전쯤, 함께 일하는 작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경제상황이나 가족 생각 않고, 진정 자신이 살고픈,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돌아가며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창고같이 좁고 아늑한 작업실에서 라면만 먹을지라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맘껏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내가 일하는 작업실은 창고라곤 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공간이고, 그곳에서 종종 라면을 먹어가며, 내가 좋아하는 동료작가와 주거나 받거나 글을 쓸 수 있으니, 어쩌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세월 따라 붙어가는 나잇살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좁은 공간이 좀 갑갑해진다. 그래서 살짝 꿈을 바꾸기로 했다. 채광과 통풍이 잘 되는 널따란 작업실(흐흐)과 마당이 있는 고즈넉한 집에서 글 쓰고 싶다고 말이다.

내가 ‘창고와 라면’을 언급한 건 지금껏 아주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 때문이다. 한때 ‘귀가시계’라 불릴 정도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은 ‘모래시계’ 마지막 회에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

카지노 대부와 정부 관료의 커넥션을 수사하던 검사가 실종된다. 그의 아내와 친구, 신문기자가 동분서주 자료를 모으고 취재해 기사를 썼지만, 막상 신문엔 단 한 줄도 실리지 않는다. 신문사 데스크는 ‘기사 한 줄 나간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겐 처자식이 있고, 여기엔 나 말고도 처자식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말한다. 좌절한 기사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늙은 인쇄공이 다가와 그 기사를 다른 데서 찍어내면 어떻겠느냐 묻는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늙은 인쇄공의 친구가 경영하는 창고같이 허름한 작은 인쇄소다. 기사는 기사를 쓰고, 검사의 아내를 인쇄공들을 위해 커다란 들통에 라면을 끓여대고, 인쇄공들은 신나게 밤새 운전기를 돌리며 호외를 찍어낸다. 검사의 친구이자 여주인공인 혜린(이 드라마로 스타덤에 올랐던 고현정이 분한)은,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의 치부를 밝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물량의 종이를 주문해 인쇄소로 배달해준다.

이 장면의 분위기가 어찌나 좋았던지, 나 역시 저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과 온 밤을 불태워 일할 수 있다면, 창고든, 라면이든 뭐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이어지는 다음 장면이 없다면 창고도 라면도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날 새벽, 거리 곳곳에 그들이 찍어낸 호외가 휘날리고, 사람들이 손에 그것을 들고 읽는, 바로 그 장면의 쾌감이 없다면 말이다.

창고와 라면의 파급력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여론에 밀린 수사기관은 결국 정권 실세를 구속하고, 남산에 가둬뒀던 검사를 풀어준다. 비록 비리의 근원까지 끊어내진 못했지만 한 걸음의 진보가 또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몇 년 전 보게 된 사극 드라마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내 눈길을 잡아끌었다. 2015년에 방송된 <화정>, 선조와 인목대비 사이에 태어난 정명공주의 삶을 그린 50부작 드라마다. 정명공주는 광해군에 의해 인목대비와 함께 ‘서궁’에 유배되다시피 살았고, 동생인 영창대군의 죽음도 고스란히 겪어내야 했던 비운의 여성이다. 인조반정으로 복권되나 싶었던 정명공주의 삶은 인조의 병적인 의심과 권력욕에 의해 또 다시 풍파에 휘말린다. 드라마는 정명의 남편이 되는 홍주원과의 로맨스와 광해군, 인조 치하에서 겪는 숱한 난관, 그리고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술가로서, 한 여성으로서 성장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여러 극적 장치를 가미하여 그리고 있다.

그 중 한 장면.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참형을 당하게 된 정명을, 홍주원이 구하려 한다. 그는 조보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는, 최명길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설득한다.

“조정에선 매일 승정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국사를 정리한 조보를 발간하지요. 그 업무를 담당할 것이 쉼 밖에 위치한 조보서이고요. 그 조보는 그 어느 것보다 파급력이 빠르고 막대합니다. 바로 관의 체계를 이용한 것이니까요.... 압니다. 국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으리, 실상 관의 힘이란 이렇게 사용돼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중차대한 사안이 있을 땐 승정원에서 조보서에 명해 특별 조보를 배급하기도 합니다. 그곳을 움직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MBC드라마 <화정> 중에서 조보소에서 조보를 발간하는 장면
(출처: 드라마<화정> 화면 캡처)

최명길의 허락을 얻은 홍주원은 정명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 편지를 조보에 실어 발행한다. 그때 조보원(기별청)의 수많은 기별서리들이 빼곡히 앉아 조보를 필사해 내려가는 장면은, 라면과 참고만큼 신명이 났다. 결국 그 조보는 도성 곳곳에 나뉘고 이를 본 백성들은 정명공주의 역모죄가 조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아무리 정명공주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인조라도, 백성들의 동요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정명공주는 누명을 벗고 목숨을 구한다.

물론 이는 드라마적 상상이다. 역사 기록만으로 보자면, 조보가 이러한 파급력을 가진 적은 없다. 조보는 쉼 안과, 전 현직 고위관리들에게만 배포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물론 잠시 동안이나마 일반 백성들도 조보를 읽던 시기가 있었다. 매일 아침 기별청에서 발행한 조보를 얻어다 할자로 인쇄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판매하는 이들이 생겼던 것이다. 조보는 날개 돌친 듯 팔렸다. 어쩌면 최초의 출판신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것을 막은 이가 정명공주의 아버지 선조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선조는 외부에서 조정의 일을 알게 되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며 노발대발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했다. 조보가 민간에 전파될 여지는 그렇게 원천봉쇄되었던 것이다.

조보에 무엇을 실을지는 승정원의 소관이었다. ‘모래시계’에 나오는 데스크처럼, 승지 역시 조보에 실어야 할 것과 실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하는 나름의 잣대가 있었을 것이다. 1633년 1월 8일, 김령의 계암일록을 보면, 마땅히 조보에 실려야 할 것이 실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대목이 있다.

1633년 1월 8일, 흐린 날씨였다. 신임 예안 현감이 편지를 보내오고,
또 조정의 소식을 담은 조보(朝報)를 보내 주었다.

.....

조보의 소식에 의하면, 이홍주(李弘胄)가 새로 예조 판서가 되고, 김수현(金壽賢)이 도승
지가 되었다고 한다. 또 이민구(李敏求)가 새로 홍문관의 부제학이 되었다.

이번 인사는 설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고 한다.

서북쪽 변방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하였다.

.....

압록강 건너편에는 군대의 깃발이 뻑뻑이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언제든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다시금 군대를 몰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러한 급박한 상황은 조보에는 자세히 실지 않았다.

조정 대신들이 사태에 대한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소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하여 숨기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나 둘 중 무엇이든 다시 군대가 압록강을 건널 것을 충실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보는 양반이라면 모두가 받아 읽기 원하는 것이었다. 요즘 말로 ‘인싸템
(‘인사이드 + 아이템’의 합성어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꼭 갖거나 사용하는 물건)’이라고나
할까.

사실 조보에 관한 묘사로는, ‘화정’보다 2010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 좀 더 현실적일지
모르겠다. 그 드라마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조보를 읽는 장면이 곧잘 등장한다. 미래 조선을 이
끌고 나갈 성균관 유생들이니만치, 조정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드라마에선 ‘신해통공’을 실시한다는 정조의 특명이 적힌 조보를, 반인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유생들에게 호외처럼 뿌려대는 모습이 등장한다. 유생들은 밥 먹는 자리에서도 조보를 손에서
놓지 않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화제에 올리며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KBS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신해통공’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실린 조보를 유생에게 전달하는 장면.
신해통공(辛亥通共)은 1791년(정조 15) 체제공의 건의로 시행된 것으로 시전상인들만의 특권 상행위를
비시전상인들에게도 허용한 정책이다. (출처: 드라마<성균관 스캔들> 화면 캡처)

그러나 조보를 보겠노라는 의지 하나만큼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애기씨 고애신을 따라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라의 명운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절, 화장품 파는 방물장수에게서 은밀히 기별지를 얻어다 보며 나라 사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고애신은, 방 깊숙이 감춰뒀던 기별지를 할아버지에게 들키고 만다.

“계집이라 하여 어찌 쓰일 곳이 없겠습니까” 하는 손녀의 항의에 애신의 할아버지는 “쓰이지 마라! 아무 곳에도 쓰이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다. 계집이 그 학문이면 되었다. 기별지는 허락 못한다. 이 나라엔 왕이 없대드냐? 조정 대신들이 없어? 설사 없다 해도 너는 안된다.” 라고 하며 손녀의 안위를 걱정한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애신의 고운 손에는 수틀 대신 총이 들려지고, 스러져가는 조선의 운명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산다.



tvN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2화에서 고애신(김태리 분)이 기별지를 읽는 것을 반대하는 조부 고사홍(이재호 분)의 모습. (출처: 드라마<미스터 션샤인> 화면 캡처)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일지 모른다. 알고자 하는 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란 그만큼의 위험과 바쁨과 손해가 따르는 일이다. 고애신은 ‘알고자 하는 자’로서의 책임감으로 그 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이런 알고자 하는 자가 있기에 역사는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감추려는 자와 알고자 하는 자의 싸움.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은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영원히 감출 수 없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작가 소개

홍윤정



1999년에 KBS 시트콤 작가로 데뷔, 드라마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작은 영화 <수상한 그녀>, <반창꼬>, <블랙가스펠>, <최강로맨스> 등이며, <수상한 그녀>로 춘사영화상 각본상을 수상했다.

편액에 대하여...

우리 선현들은 건물의 공간에다 성현이 남긴 경전이나 유명한 학자들의 글에서 인용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당대 이름난 사람의 글씨를 받아 목판에 새겨 건물에 붙였습니다. 이를 ‘편액’이라고 합니다. 편액의 의미를 알면 건물의 기능과 용도, 그리고 건물 안에서 생활했던 선현들의 삶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담>에서는 이번 호부터 본원이 소장하고 있는 편액을 소개하고, 편액에 새겨진 글씨의 의미와 그 공간에서 생활했던 선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편액이 기록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편액의 재질과 형태, 편액의 글씨 등 편액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 ‘편액’

‘편액’은 건물의 처마와 문 사이에 글씨를 새겨 걸어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액은 건물의 기능과 의미, 건물주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3~5자 정도로 함축하여 반영하고 있는 기록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189개 문중 및 서원의 550점 편액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편액은 건물의 건축 목적에 따라 주거공간, 추모공간, 교육공간, 수양공간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16세기~20세기 초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편액에는 함축된 2~5자 정도의 글자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세계,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부모에 대한 효, 조상에 대한 추모, 선현에 대한 존송尊崇, 학문에 대한 열정과 신념, 유유자적하는 정신세계를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매우 함축된 인문정신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편액의 글씨는 모두가 단 1점만 남은 유일한 글씨로, 위작僞作이나 동일한 글씨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출처와 소유주가 분명하며, 훼손된 이후에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 기록물입니다. 제작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만약 편액이 훼손된다는 것은 편액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서체가 사라지며, 또한 편액에 담긴 시대정신도 함께 사라지는 결과와도 같습니다. 이 기록물은 특히 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 인문정신과 서예 미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자신이 표방하고 있는 삶의 가치를 편액을 통해 드러내고 평생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유학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록물입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가치와 서예 미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아 지난 2016년 5월 19일 베트남 후에(Hue)시에서 열린 제7차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 위원회(MOWCAP) 총회’에서 최종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편액의 글씨

편액의 글씨는 건물에 상응하는 최고의 글씨로 장엄하게 장식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일찍부터 한자를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한자 자체가 표음문자 아닌 상형문자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붓을 통하여 나타나는 글씨는 그 자체가 예술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현들은 건물에 이름을 붙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의 의미하는 바를 공간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의 주인은 당대 최고의 서예가, 문필가, 학자 등의 글씨를 받아 편액으로 제작하는 것이 건물을 짓는 일 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편액의 글씨에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글씨체는 물론 당대의 시대사조와 시대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편액에는 글씨를 쓴 인물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으로, 선비들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하며, 아직 미완성의 글씨로 자신을 드러낼 만큼의 작품이 아니라는 선비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즉 조선의 선비들은 “글은 그 사람과 같다(書如其人)”이라 하여 글씨의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사람의 도덕적 가치, 정신적 면모가 글씨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여겨 아직 이름을 드러낼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겸손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편액에는 글을 쓴 인물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일부 편액에서는 낙관을 찍어 글쓴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거나, 건물 주인의 문집이나 일기 등의 기록물을 통해 편액의 글씨를 쓴 인물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우선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 퇴계 이항(1501~1570)을 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편액 중 퇴계 이항이 쓴 글씨는 이요문二樂門·조양문朝陽門·설월당雪月堂·고산정孤山亭·선몽대仙夢臺·월천서당月川書堂·성재惺齋 등이 있습니다. 그의 글씨는 한 획을 긋는 데도 거기에 마음을 두었고 글자의 짜임새에 있어서도 울동적 효과를 살려내 엄정한 짜임과 깨끗한 필치로 평가 받습니다.



고산정 / 60.0×125.5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에 있는 누정의 편액. ‘고산(孤山)’은 고산정 건너편의 작은 산이자, 누정의 주인 금난수(琴蘭秀)의 자호이기도 하다. 소식蘇軾의 시 “선달 그믐날 고산에서 놀며 혜근과 혜시 두 스님을 찾아뵈다(臘月遊孤山 訪惠勤惠思二僧)”에 “외로운 산의 록계 떨어져 있으니 누가 집을 짓고 살기를 바라겠는가? 도인이 도를 닦으니 산은 외롭지 않네.(孤山孤絕誰肯處, 道人有道山不孤)”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조선 4대 명필가의 한 사람으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서예가인 석봉石峯 한호韓濩(1543~1605)가 쓴 6점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도산서원陶山書院·화경당和敬堂·만취당晩翠堂·양진재養眞齋·태고정太古亭·탁청정濯淸亭 등 6점으로, 한호는 국왕으로부터 글씨를 인정받아 각종 외교문서의 작성을 도맡아 쓴 인물입니다. 그의 글씨는 정적인 정돈미가 돋보이며 후대에까지 전승되어 ‘석봉체’로 불릴 만큼 영향이 컸지만 당대 일부 학자들은 품격이 낮고 운치와 기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산서원 / 57.5×206.3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있는 도산서원 편액. ‘도산陶山’은 도산서원이 자리한 뒷산을 가리키는데, 부근에 웅기를 굽는 가마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글씨는 석봉 한호가 선조의 명을 받고 어전에 쓴 것으로 전해진다.

미수체眉叟體란 독보적인 글씨체를 남긴 미수眉叟 허목許穆(1595~1682)의 글씨는 충효당忠孝堂·백운정白雲亭·경류정慶流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운정 / 71.0×146.0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에 있는 누정 백운정(白雲亭)의 편액. ‘백운白雲’은 흰 구름을 보며 아버지를 못 잊어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백운白雲’은 남조南朝 제齊나라 시인 사조謝朓의 시 「배중군기실사수왕전拜中軍記室辭隨王箋」에 “흰 구름은 하늘에 떠 있건만, 응문 땅은 보이지 않네.[白雲在天龍門不見]”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조선 정조대의 화가로 이름을 날린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1745~?)는 담락재湛樂齋·이가당二可堂 등의 글씨를 남겼습니다. 특히, 김홍도는 화제畫題로 쓴 글씨는 남아 있으나 대자大字 글씨는 남은 것이 없이 더욱 희귀한 작품으로 평가 받습니다.



이가당/ 26.5×39.5

안동시 범흥동에 있는 이가당(二加堂)의 편액. 조선 영조 때에 이가당 이시방(李時昉, 1674~1739)이 임진각에서 분가하면서 지은 정자로 학문을 닦고 정진하기 위한 것으로 호를 따서 ‘二加堂’이라 편액하였다.

추사체秋史體로 이름을 날렸으며, 조선 후기 실사구시의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정희金正喜(1786~1856)는 예서의 새로운 경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관학적 글씨가 갖는 폐단을 통감하고 독창적인 서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구성과 역학적인 조화를 주어 예술로서의 추상의 경지에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편액글씨로는 매심사梅心舍, 화수당花樹堂, 사서루賜書樓 등이 남아 있습니다.



사서루/ 34.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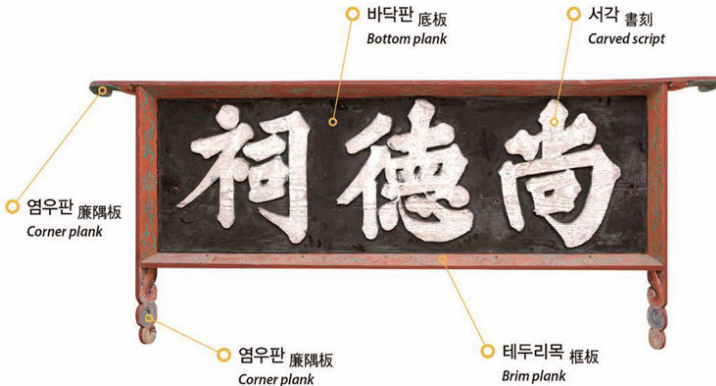
안동김씨 감찰공파監察公派 후손인 둔굴재屯屈齋 김부일金富鎰씨 개인 소장 편액이다. ‘사서루賜書樓’는 ‘왕이 내려준 서적을 보관하는 서루’라는 뜻으로, 맹자孟자의 후손이 황제로부터 하사 받은 책을 보관, 관리하던 중국 산둥 맹부孟府의 ‘사서루賜書樓’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추사의 독특한 개성이 담겨 있는 글씨로 평가 받는다.

편액의 재질과 형태

편액의 한자어 중 편匾은 “문호門戶에 제목을 붙인다.”는 뜻이며, 형태적으로는 가로로 글씨를 적어 제작한 나무판입니다. 이에 비해 액額은 “문병門屏위에 걸려있는 편편한 나무 판”이란 의미와 함께, 형태적으로 세로로 글씨를 적어 제작 한 나무판을 말하는데, 이 둘을 합쳐 편액匾額이라 부릅니다.

편액의 재질은 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편액을 만드는 나무는 향나무, 은행나무, 배나무, 느티나무 등도 사용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보통 황장목黃腸木이라 부르는 종류를 사용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속에서 열은 황색의 색깔이 배어나와 은은한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에 즐겨 사용한 재료의 하나였습니다.

편액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닥판재, 둘째 테두리 목, 셋째 염우판廉隅板입니다. 세 가지의 구성요소를 전부 갖춘 편액들로 많이 있지만, 또 많은 편액들은 테두리목만 있거나, 테두리목과 염우판 없이 바닥 판재로만 만들어진 편액들도 많이 있습니다.



테두리 목은 편액 바닥판재의 사방을 나무로 둘러싸고 여기에 문양을 그려 넣기도 하는데, 편액의 판재가 뒤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문양을 그려 미적인 효과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염우판은 장식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체로 운문雲文, 서수瑞獸 등의 모양으로 판각하고 화려한 단청을 칠해 아름다움을 배가 시켰습니다.

바닥판재는 하나의 나무를 가공하여 만들기도 하며, 규모가 큰 편액은 2~3조각의 판재를 맞추어 제작하기도 하는데, 여러 조각으로 제작할 때는 기온과 습도에 따른 나무의 수축을 고려하여 판과 판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어 판을 제작했습니다.

정리

김민옥(한국국학진흥원)

위 내용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행한 <한국의 편액>을 토대로 재구성 했습니다.

발행일 2019년 1월 1일

발행처 한국국학진흥원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36605)
전화 054-851-0754
홈페이지 story.ugyo.net
블로그 blog.naver.com/storyugyo
전자우편 story@koreastudy.or.kr

총괄/기획 김민욱(한국국학진흥원 국학정보센터)

디자인 김용원(디아이)

제작 김기해(단아코퍼레이션)